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정규*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7. 7. 9(일) ~ 7. 30(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지방에 위치한 전교생이 1000명 정도인 작은 대학이지만 조용하고 괜찮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당히 좋은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처음 갔을 때 분반시험을 통해 2개 반으로 나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다. 수업은 크게 쓰기, 읽기, 말하기, 문법으로 나뉘고 과제는 별로 없다.</p> <p>문법 : Ben 읽기 : Julia 쓰기 : ildiko 말하기 : Darran</p> <p>상당히 기초 적인 것 위주로 배운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기념품 외에 따로 지불할 비용은 없다. 수영이 하고 싶은 사람은 수영복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유일하게 필요한 준비물)</p> <p>농촌, 노인, 어린이, 축제를 돕는 봉사, 관광 및 체험, 축제 참여 등이 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평균 20도고 비 오면 상당히 춥고 햇볕은 뜨겁다. 습하지는 않아서 덥지는 않다. 밤 10시에도 해가 떠 있고 새벽 5시부터 밝아오기 시작한다.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날씨지만 캐나다 기상청에서 그나마 정확한 예보를 얻을 수 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한국과 맞먹는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총기 규제도 되어 있어 죽을 일은 없다. 3주 동안 인종차별도 없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침대가 엄청 크고 자유로우며 규칙은 없다. 사람도 좋아서 음식을 제외하고는 좋았다.</p>
식사	<p>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식당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햄버거나 샌드위치가 상당히 비싸다. 캐나다 햄버거라고 다른 건 없으니 다른 음식을 먹는 걸 추천한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30분 주기의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주말과 저녁은 1시간 주기)</p> <p>차가 별로 없어서 아무도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건너다 차에 치이지 않게 주의해야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30,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779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100,000원	아이스와인, 메이플시럽
식비	400,000원	
유흥비	50,000원	놀이기구 및 축제 참가
합계	2,412,079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또래의 캐나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캐나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기대는 버리고 가는 것이 좋다. 수업은 상당히 기초적인 것만 배우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방이라 할 게 없으니 도움을 좀 받아야한다.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고 순박하고 많이 베풀기 때문에 자신이 유복한 홈스테이를 만나거나 친구의 홈스테이와 친해져 여러 이벤트의 초대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 비 올 때와 저녁은 춥고 낮에는 덥다. 모기도 꽤 많기에 긴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인 유학생이 대부분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인생의 다시없을 경험을 했고 대만족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고 새로운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가장 기대하고 간 것은 캐나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 가기 전에는 3주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지만 가서 보니 방학이라서 만나볼 기회조차 없다.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과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에 빨리 포기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지금은 엄청 친해진 일본인 친구도 생겼다. 내게 있어 캐나다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이 친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나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덕분에 일본어가 엄청나게 늘었다. 3주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이 친구와 붙어 다니면서 친구랑 대화할 때는 영어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전부 일본어로 대화했다. 올해 12월에 일본에서 만나기로 계획도 했다. 집에서 재워 주고 차도 태워주고 구경도 시켜준다고 약속까지 받았다.

영어와 관련해서는 내 실력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ESL이라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레벨 5까지 있고 전부 수료해야 캐나다 본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보는 분반 시험과 같은 시험을 봤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바로 본과 수업을 들어도 된다고 했다. 그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는데 어느 정도 수복이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Darran</p>	<p>수세인트마리 상공</p>
	
<p>Color blast</p>	<p>학교 체육관</p>
	
<p>비행기 박물관</p>	<p>Lake Superior</p>